

일부 폐결핵환자의 정신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간호과 김숙정·전은희
전임강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폐결핵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국가보건의 중요한 문제로 지역사회와 건강사업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질환으로 남아있다.¹⁾

폐결핵은 만성화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신체의 침범이 치명적이며 폐결핵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전문인, 가족,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특징적이고 폐결핵을 난치병 또는 전염병으로 생각하여 정신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환자로 하여금 그가 속한 사회 및 가정이라는 조직망 (social network)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여러가지 정신적인 갈등을 초래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폐결핵환자들의 병의 정도, 유병기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그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간호활동을 계획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가 설

본 연구의 목적 중 폐결핵환자들의 정신건강상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1) 유병기간이 길수록 정신건강검사 척도의 점수가 높을 것이다.
- 2) 병의 정도가 중할수록 정신건강검사 척도의 점수가 높을 것이다.
- 3) 두 변수와 정신건강상태와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3. 용어의 정리

- 1) 유병기간 : 의료기관에서 폐결핵이라고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검사(SCL-90-R)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2) 병의 정도 : 병소의 크기에 의한 분류로서,
① 경증(minimal)은 병소의 총범위가 둘째 늑연골집합부와 네째 흉추의 범위내로 국한되

며 공동이 없는 상태를 말함.

② 중등증(moderately advanced)은 한폐나 양폐에 병소가 다 올 수 있지만, 그 병소의 총 범위가 중간 정도의 음영으로는 한폐의 용적을 넘어서는 안되며 심한 병소의 합은 한폐의 1/3에 해당하는 범위이거나 공동의 직경총합이 4cm보다 적은 상태를 말함.

③ 중증(Far advanced)은 중간정도보다 병소가 크고 공동이 큰 결핵을 말함.

4. 연구의 제한점

조사대상자가 광주지방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전체 대상자로 확대 해석할 때는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II. 문헌고찰

1. 폐결핵환자의 정신건강상태에 관한 선행연구

일찌기 Weiss는 결핵환자는 애정과 보호에 대한 강한 요구를 나타내며 신경증환자가 많음을 지적하였다.²⁾

또한 Spencer는 결핵환자의 심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결핵환자 치료에는 반드시 포괄적인 Social service와 Vocational therapy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고,³⁾ Wittkwer⁴⁾와 Hartz⁵⁾ 등은 대체로 폐결핵환자들은 불안정하고 반항적이고 갈등에 가득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정⁶⁾은 Maudsley Medical Questionnaire를 사용한 결과 불안이 높게 나타났고, 남⁷⁾과 이⁸⁾도 폐결핵환자를 대상으로 MMPI를 이용해본 결과 Excessive somatic complaints, Depressed mood, Hysteroid tendency, sensitive, Anxious state를 나타내고 병의 정도가 중하고 유병기간이 길수록 신경증적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III. 연구대상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대상자는 K병원에서 입원 혹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16세 이상인 자로 의사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검사에 참여를 수락한 대상자에 한해서 본 연구자가 병실과 진찰실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전 반응이 왜곡되지 않도록 목적과 지시를 설명한 후 검사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대상자는 스스로 답안지를 완성하도록 하고 다른 대상자들은 structured interview를 실시하여 가능한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여 표시하였으

며 자료수집기간은 1986년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하여 97명의 자료중 문항을 빠뜨린 자료는 제외하고 수집된 자료는 86명의 검사결과이다.

2. 연구도구 및 자료분석방법

1) 정신건강상태 측정도구 :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Derogatis 외 2인⁹⁾이 개발한 SCL-90-R을 국내의 원¹⁰⁾과 김¹¹⁾이 표준화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이다. 이 도구는 9개 증상차원, 즉, 신체화(Somatization) 12문항, 강박증(Obsessive-Compulsive) 10문항, 대인예민성(Interpersonal Sensitivity) 9문항, 우울(Depression) 13문항, 불안(Anxiety) 10문항, 적대감(Hostility) 6문항, 공포불안(Phobic Anxiety) 7문항, 편집증(Paranoid Ideation) 6문항, 정신증(Psychoticism) 10문항, 부가적문항 7문항으로 총 9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개의 심리적 증상을 대표하고 있다.

환자는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일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 (0점) “약간 있다” (1점) “웬만큼 있다” (2점) “꽤 심하다” (3점) “아주 심하다” (4점)의 5점 평점을 하게 되어 있어 각 항목에서 얻어진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2) 자료분석방법 :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기 위하여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고 유병기간, 병의 정도의 정신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t-test, ANOVA로 처리하였고 이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직업, 교육정도, 결혼상태, 종교유무, 가족의 월수입, 의료보험 가입상태, 유병기간, 병의 정도, 치료방법을 조사하였다. <표 1>

성별분포는 남자 77.9%, 여자가 22.1%로 남자가 여자의 3배 이상이며 연령분포 또한 45세 이상 연령군이 56.9%이며 44세 이하가 43.1%로 비교적 결핵은 노인이나 남자에게 발생빈도가 높다는 보고¹²⁾와 일치한다. 직업은 30.2%가 없고 노동이 15.1% 학생이 12.8%, 농업이 11.6% 순위로 뚜렷한 직장을 가진 경우는 2.09%이며 교육정도를 보면 무학 또는 국졸이 40.7%로 가장 많고 고졸이 32.6% 중졸이 17.4%, 대졸 9.3%로 전체적으로 낮은 학력수준을 나타내었다.

가족의 월수입은 50%가 20만원 이하이며 21~50만원이 39.6% 50만원 이상이 10.5%로 비교적 낮은 경제상태을 나타내고 유병기간은 47.7%가 1년 이내이며 5년 이상이 27.9%, 1년~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分	No.	%	특 성	구 分	No.	%
	남	67	77.9	종교유무	유	43	50.0
	여	19	22.1		무	43	50.0
연 령	15 ~ 24 세	15	17.4	가족의 월수입	10 만원이하	28	32.6
	25 ~ 34 세	10	11.6		11 ~ 20 만원	15	17.4
	35 ~ 44 세	12	14.0		21 ~ 30 만원	14	16.3
	45 ~ 54 세	18	20.9		31 ~ 40 만원	9	10.5
	55 ~ 65 세	23	26.7		41 ~ 50 만원	11	12.8
	66 세 이상	8	9.3		50 만원이상	9	10.5
직 업	무	26	30.2	의료보험	의료보험	41	47.7
	노동	13	15.1	가입상태	의료보호	24	27.9
	주부	8	9.3		일반	21	24.4
	학생	11	12.8	유병기간	0 ~ 6개월	25	29.1
	기술직	5	5.8		6 ~ 1년	16	18.6
	농업	10	11.6		1 ~ 3년	16	18.6
	교원	2	2.3		3 ~ 5년	5	5.6
	회사원	5	5.8		5년이상	24	27.9
	기타	6	7.0				
교육정도	무	8	9.3	병의정도	경증	39	45.3
	국졸	27	31.4		중등증	27	31.4
	중졸	15	17.4		중증	20	23.3
	고졸	28	32.6				
	대학	8	9.3	치료방법	통원	42	48.8
결혼상태	미혼	23	26.7		입원	44	51.2
	기혼	63	73.3				
합 계		86	100.0	합 계		86	100.0

5년이 24.4%를 보이고 있다. 병의 정도는 경증이 45.3% 중등증이 31.4% 중증이 23.3%였다.

2. 대상자의 유병기간별 정신건강상태 비교

본 연구의 한 변수인 유병기간과 정신건강상태의 비교는 〈표 2〉와 같다.

〈표 2〉 유병기간별 정신건강상태 비교

유병기간 척도	0~6개월(25)		7~12개월(16)		1~3년(16)		3~5년(5)		5년이상(24)		F	P
	M	SD	M	SD	M	SD	M	SD	M	SD		
S O M	7.52	4.98	5.56	2.68	11.31	7.12	11.20	10.61	14.04	9.92	4.331	.0032**
O-C	7.84	5.35	7.50	4.67	8.93	4.87	8.00	6.20	11.08	7.46	1.282	.2839
I-S	4.44	3.81	3.87	2.27	5.06	4.59	7.00	2.34	7.29	7.48	1.585	.1862
D E P	10.68	7.70	9.68	6.33	16.25	9.67	11.80	8.95	17.50	11.89	2.748	.0337*
A N X	4.80	4.73	3.12	2.06	4.62	4.77	8.40	6.22	8.50	7.65	3.058	.0212*
H O S	2.20	2.16	3.00	2.12	2.31	2.46	4.20	1.30	3.91	3.95	0.613	.1790
P H O B	1.92	3.70	1.25	1.43	1.81	4.03	2.20	1.48	2.91	4.31	0.577	.6804
P A R	1.52	1.58	1.62	1.20	2.12	2.63	2.6	1.94	3.54	3.37	2.642	.0395*
P S Y	4.64	4.41	3.87	3.46	5.12	4.70	5.60	1.14	7.58	4.41	2.363	.0599

** P < 0.005 * P < .05

유병기간별 정신건강상태는 유병기간이 길수록 신체화, 우울증, 불안, 편집증이 유의한 차이 ($P < .005$, $P < .05$)를 나타내며 평균을 보면 유병기간이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그 이후는 유병기간이 길수록 각 척도의 평균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진단을 받은 초기에는 많은 정신적 갈등을 초래하다가 6개월이 지나면 어느정도 질병에 대해 수용하고 치료를 하다가 치료기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여러가지 정신적인 증상들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이것은 이⁸⁾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3. 병의 정도별 정신건강상태 비교

본 연구의 한 변수인 병의 정도별 정신건강상태의 비교는 〈표 3〉과 같다.

〈표 3〉 병의 정도별 정신건강상태 비교

척도	경증 (39)		중등증 (27)		중증 (20)		F	P
	M	SD	M	SD	M	SD		
S O M	8,4359	6,7113	7,9630	5,0951	15,3500	10,0330	7.519	.0010 **
O - C	7,4615	4,7730	8,9259	5,5187	11,6500	7,6038	3.493	.0350 *
I - S	4,6923	3,5552	4,9259	4,5313	7,4000	7,5908	2.078	.1316
O E P	11,7179	8,6205	12,6667	9,1104	18,1000	11,2619	3.177	.0468 *
A N X	4,5128	4,8767	5,1852	3,5522	8,7000	8,4049	3.904	.0240 *
H O S	2,5385	2,4371	2,6296	1,8636	4,2500	4,1660	2.774	.0682
PHOB	1,7179	2,8924	2,0370	3,5786	2,8000	4,6180	0.610	.5458
P A R	1,9487	1,8202	1,8889	1,9480	3,4500	3,7201	3.047	.0529
P S Y	5,0769	4,2943	5,3333	4,3677	6,4000	4,4651	0.628	.5364

** $P < .001$, * $P < .05$

병의 정도가 심할수록 모든 척도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화, 강박증 우울, 불안의 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P < .001$, $P < .05$) 오,¹³⁾ 남,⁷⁾ 이⁸⁾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가설 2)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4. 두 변수와 정신건강상태간의 상관관계

유병기간, 병의 정도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표 4〉

〈표 4〉 유병기간, 병의 정도, 건강통제위와 정신건강상태간의 상관관계

척도 변수	SOM	O-C	I-C	DEP	ANX	HOS	PHOB	PAR	PSY
유병기간	.3767	.2191	.2480	.2947	.3008	.2367	.1290	.3298	.2883
	.000*	.021*	.011*	.003*	.002	.016*	.118	.001**	.004*
병의정도	.3147	.2743	.1938	.2446	.2705	.2179	.1169	.2144	.1143
	.002**	.005*	.037*	.012*	.006	.022*	.142	.024*	.147*

** $P < .001$, * $P < .05$

그 결과 유병기간과 병의 정도에서 공포불안을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P < .001$, $P < .05$) 따라서 가설 3)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폐결핵 환자들의 병의 정도와 유병기간에 따른 정신건강상태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광주시내 K병원의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폐결핵 환자 86명으로 조사기간은 1986년 7월 11일부터 18일까지였으며 연구도구는 김광일 등이 표준화한 한국판 간이 정신진단검사(SCL-90-R)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상자의 유병기간별 정신건강상태

유병기간을 6개월 이내부터 5년 이상까지 5단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각 기간별 정신건강상태는 기간이 길수록 신체화, 우울증, 불안, 편집증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P < .001$, $P < .05$)

2. 대상자의 병의 정도별 정신건강상태

병의 정도를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정신건강상태는 병의 정도가 증할수록 신체화 강박증, 우울, 불안 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2)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P < .001$, $P < .05$)

3. 두 변수와 정신건강상태간의 상관관계

유병기간과 병의 정도와 정신건강간 공포불안을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어, 가설 3)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P < .001$, $P < .05$)

참 고 문 헌

1. 홍영표 : 폐결핵 치료의 최신동향, 대한의학협회지, 제25권, 제10호, 875~879, (1982).
2. Weiss, E. : Psychosomatic Medicine, Saunders, p.615, (1950).
3. Spencer : Psychosomatic Medicine, Saunders, p.618, (1950).
4. Wittkower, E. : A Psychiatrist Looks at Tuberculosis, 2nd, ed., Nat. Assoc, Prev, Tuberc, London, (1955).
5. Hartz, J. : "Psychology of the Tuberculosis" Chap 16 in Wittkower, E. D. and Cleghorn, R. A. (Eds.), Recent Developments in Psychosomatic Medicine, Lippincott, Philadelphia, (1954).
6. 정재혁 : 결핵병원내의 정신건강문제에 관한 연구, 결핵 및 호흡기질환, Vol.20, No.3, 12~16, July, 1973.

- 남광현외 3인 : 결핵환자에 대한 M. M. P. I. 신경정신의학, Vol.13, No.4, 431~435, (1974).
8. 이미화 : M. M. P. I에 의한 폐결핵환자의 성격분석(교육학석사학위 청구논문), (1979).
9. Derogatis, L. R., Rickels, K. & Rock, A. F : The SCL-90 and the M. M. P. I. : A Step in the Validation of a New Self-report Scale, Brit. J. Psychiat, 128, 280~289, (1976)
10. 원호택 : 간이정신진단검사 한국표준화 연구Ⅱ. 한양대학교논문집, 제12집, 457~474, (1978).
11.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 Korean Manual of Symptom Checklist-90-Revision, 서울중앙적성연구소, (1984).
12. 김영옥외 : 성인간호학, 수문사, 상권 p.566, 1983.
13. 오석환, 박조열, 이재민, 박희주, 황성무 : 입원된 폐결핵환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결핵 및 호흡기 질환, Vol.20, No.3, 12~16, July, (1973).

A Study on Mental Health Status of the Pulmonary Tuberculosis patients

Kim, Sook-jung, Jeon, Eun-hee

Kwang-ju Health Junior College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mental health status of the pulmonary tuberculosis patients.

The purpose wa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planning effective nursing care in tuberculosis patient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86 admitted and out patients of the K hospital in Kwang Ju.

The data was collected between July 11 to 18, 1986.

The measurement tool was the SCL-90-R.

Data of subjects was analized of mental health condition according to the variables (Duration of the disease, Severity of the disease).

Analysis of the data was done by use of percentage, ANOVA,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s :

1. According to duration of the diseas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een 4 scales as Somatization, Depression, Anxiety, paranoid ideation. ($p < .005$, $p < .05$)
2.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ree disease of severity groups. ($p < .001$, $p < .05$)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een 4 scales as Somatization, Obsessive-compulsive, Anxiety.
3.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duration of the disease, severity of the disease and mental health scales. ($p < .001$, $p < .05$)